

21세기에도 자본주의는 지속될 것인가?

마르크스주의로 본 21세기 자본주의

박상현 | 과천연구소실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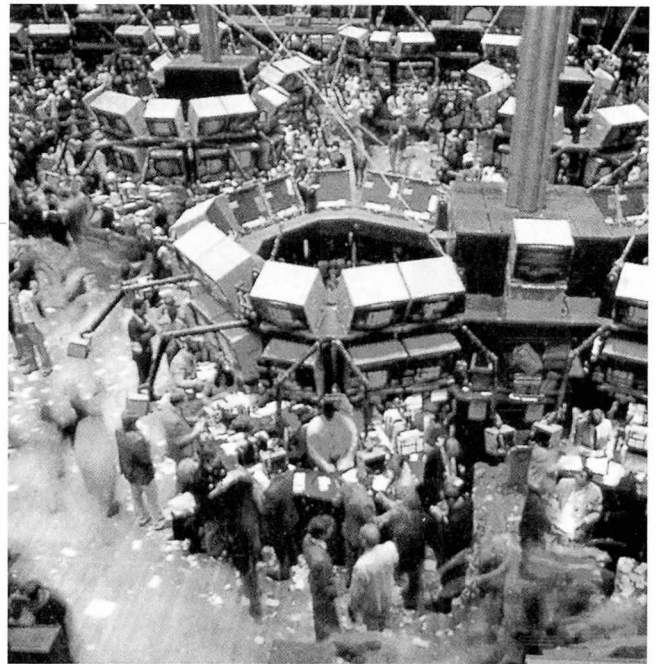
21세기는 20세기를 규정했던 거대한 질서의 위기와 해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세기 초 세계자본주의의 상황은 현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21세기에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려면,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20세기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시간 동안 인류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의문이다. 20세기 초 유럽 세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기 보다는 지나간 세기의 역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세기 초에 세계를 뒤흔든 최근의 대미 테러와 전세계적인 경제적 동요는 우리가 여전히 20세기에 배태된 모순들, 더 정확히는 미국 헤게모니 체계의 모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의 지식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20세기라는 물리적 시간 동안 인류가 품었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인류가 시도했던 크고 작은 역사적 실험과 지적 성취에 대한 진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20세기 세계를 규정했던 거대한 질서의 위기와 해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훨씬 현실에 가까운 진단일 것이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어줬던 역사적 조건들이 침식되기 시작했다. 케인즈주의의 위기, 미국 법인자본의 초민족화,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세계적 확산 등은 20세기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표현한 것과 다름 없다.

축적체계의 위기에 놓인 세계자본주의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무엇으로 귀결될 것인가? 우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것의 전개 양상과 오늘날 현실을 비교하고,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20세기 초 세계자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사진은 뉴욕 증권거래소.

본주의의 상황은 지금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왜 지금의 상황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보자.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기적 팽창은 언제나 특정한 세계 체계모니 아래 발생해왔다. 세계 체계모니는 단순한 군사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체계 전체의 발전방향을 규정해줄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안정적 축적체계를 필요로 한다. 19세기의 영국이나 20세기의 미국은 바로 이런 축적체계의 담지자가 돼왔다. 마르크스적 분석에 따르면, 이런 축적체계는 정책이나 제도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 그 결과 일정한 내적 범칙에 따라 고유한 역사적 궤도를 그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약 100년의 주기를 보이며, 하나의 주기는 '물질적 확장의 국면'과 '금융적 확장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이런 주기와 궤도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고유한 모순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다. 자본축적을 위한 안정적인 역사적 조건들이 구축된 이후 자본주의는 산업 자본을 중심으로 물질적 확장 국면에 돌입한다. 그러나 자본의 한계는 자본 그 자신이다. 즉,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로 인해 물질적 확장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특정 시점에 이르러 물질적 확장의 국면이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런 위기는 특정한 축적체계의 '징후적 위기'가 된다. 이는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침체나 후퇴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적체계의 구조적 위기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21세기 금융적 확장

징후적 위기에 처한 축적체계는 초민족적 고도 금융이 주도하는 금융

적 확장의 국면으로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헤게모니 국가는 다시 한번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게 된다. '벨 에포크' (bell époque)라 불리는 이전 시기에 자본은 물질적 확장에서 후퇴해 금융적 확장에 주력한다. 금융적 확장의 국면에서 물질적 부, 즉 가치와 잉여가치의 확장은 후퇴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상에 의해 추동되는 일종의 '허구적' 축적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허구적 자본의 축적과 낙관주의의 시대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헤게모니적 축적체계는 '최종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역사에서 이런 구조적 위기와 그것이 낳은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목격했다. 영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 자본주의는 19세기 말 물질적 확장의 위기에 부딪혔고, 그에 뒤이은 금융적 확장과 20세기 초반의 세계전쟁 속에서 몰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영국에 본거지를 둔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영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던 독일의 독점자본의 충돌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 이런 충돌의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종종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했다. 그 결과 20세기 초의 서구 역사는 제국주의 전쟁,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반혁명과 파시즘의 출현 등 폭발적인 정치·사회적 위기와 투쟁을 동반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출발점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상징된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패배, 전세계적인 대중적 소요,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붕괴, 전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 등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다. 또한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위기의 징후가 됐다. 그 후 자본주의의 위기는 세계적인 경기순환의 동조화와 함께 전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외채 위기를 거쳐 최근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 경제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에 직면할 가능성 높아

이렇게 볼 때 초민족적 범인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매개로 한 금융적 규범의 전세계적 확산은 1970년대 이후 위기에 처한 미국 축적 체계가 금융화 국면으로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제3세계 외채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적 확장을 보장했다. 이런 금융적 확장은 1990년대에 벨 에포크에 도달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계적인 금융적 확장이 어떤 장기적인 성장의 전망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위기에 기생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위기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축적체계와 세계 헤게모니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세기 초

에 비견할 만한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를 목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구체적 형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금융적 확장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금융적 확장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이 초민족적 범인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민족적 범인자본은 현재 전세계의 주식시장을 매개로 끊임없는 금융적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자본주의는 20세기 초와 달리 국제적 금융규범에 맞는 형태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의 금융적 확장은 과거와 달리 민족국가의 물질적 토대를 침식한다. 그 단적인 사례는 세계 도시(global city)들을 잇는 금융 네트워크다. 금융 네트워크의 결과로 인해 20세기 초 중심부 민족국가간 식민지 쟁탈전과 달리 민족국가 내부에서 사회적 통합력이 해체되고 주변부 국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배제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도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현재와 같은 금융적 확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현재로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대안적인 헤게모니를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기존 질서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종류의 야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21세기에 인류가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박상현씨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과천연구실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다음은 《비평》(2001년 상반기)에 실린 정운영 교수의 <<공산당 선언>>를 다시 읽으며>에서 발췌한 글로 금융자본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의 행동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수탈의 주체를 초국적 자본으로 지목한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세계화에 힘입어 자본주의 역사 초유로 '시장 원리'가 세계에 동시적으로 관철되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주체는 '현대의 금융자본(finance capital)'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자본의 역할 변화이다. 전통적인 생산자본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으로 상품을 만들어 내는 만큼 여기서 야기되는 계급갈등은 생산 현장에서 즉시 폭로된다. 그러나 국내와 해외의 증시를 넘나드는 화폐자본의 경우는 이자나 양도차익 추구가 목표이므로 갈등의 표출이 생산자본만큼 직접적이지 않다. 자본 체류나 주식 매수로 기업이 인수되거나 합병될 경우 투쟁을 위한 물리적 현장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본가의 행위와 결정에서 소외된다. 그렇다면 투쟁은 자본 못지 않게 국가권력과 세계기구로 향해야 하는데, 그것은 개별 자본가와와는 투쟁보다 훨씬 더 험난한 작업이다. ... 힘의 사용은 자유이고 그 자유주의 기반 위에서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세계 영토를 분할한 것이 제국주의 이념이라면, 돈의 사용은 자유이고 그 자유주의의 재판인 신자유주의 것발 아래 자본의 이해에 따라 세계 시장을 분할하는 것이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이다.”